

# 청소년의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의 변화과정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 Qualitative Meta-Analysis about the Change of Adolescents in the Process of Returning from the School Dropout

이정숙  
가톨릭관동대학교

Jeong-Sook Lee(js-lee@cku.ac.kr)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의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분야의 질적 연구 자료들을 대상으로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메타분석은 같은 주제를 다룬 질적 연구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에 이르는 과정을 다룬 국내 질적 연구를 대상으로 선정과정을 거쳤다. 분석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논문은 국내의 학술지에 출판된 7편이다. 선정된 개별 연구들을 비교·분석하여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에게 학업중단으로부터 학업복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성찰과 지지를 통한 자기성장'이었다. 이 과정에는 포기, 표류, 자각, 결행, 분투의 5개의 변화단계가 나타났다. 변화를 이끄는 관련 요소는 자기자각, 현실인식, 자원과 지지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단계의 특징을 설명하고 논의하였다. 끝으로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 중심어 : | 학업중단 | 학업복귀 | 변화과정 | 질적 메타분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at kind of changes adolescents experienced in the process of returning from the school dropout. For this purpose, 'Qualitative Meta-Analysis' was conducted for seven papers of this area, which was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as a method. 'Qualitative Meta-Analysis' is a method of presenting new interpretations by synthesizing qualitative studies on the same topic. In this study, the qualitative research on the process of returning from the school dropout was selected. The final articles selected for the analysis were seven articles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The results obtain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elected individual papers were as follows. For adolescents, a series of the process of returning from school dropout was 'self-growth through introspection and support.' In this process, there were five stages of change: abandonment, drifting, self-awareness, decisive action, and struggles. Relevant factors that led to this change were self-perception, the awareness of a reality, resources and support. Based on these result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tep were explained and discussed.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clarified and the follow-up study was proposed for more detailed examination.

■ keyword : | Dropout School | Return to Academy | Change Process | Qualitative Meta Analysis |

## 1. 서론

교육부 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 따르면 2015년 초중고 교 학업중단 학생은 47,070명이며,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중단율이 나타났다[1]. 학업중단을 막으려는 해결책으로 교육부는 2014년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였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생들이 학업을 최대한 중단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생각할 수 있게 한 제도로서 중단사의사가 있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이는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최소 14일 최대 50일간 상담,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학업중단숙려제의 도입으로 2015년 학업중단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0.06% 포인트 하락하였다. 학업중단숙려제에 이어 교육부는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공포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학업중단 감소를 위한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의 가장 큰 사유는 여전히 ‘학교’에 있었다.

2016년 교육부의 행복교육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업중단의 가장 큰 사유는 초등생의 경우 가정환경, 또래와의 관계였다. 중학생의 경우 또래와의 관계가 가장 큰 학업중단 사유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부적응이 가장 우선되는 중단사유였다. 이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교’가 ‘학생’에게 맞춤형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우선 현실적이고 시급한 해결책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현재의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이 ‘학교’를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곳으로 평가하도록 만드는 것이겠다.

학업중단을 이해하고자 한 국내의 양적 연구는 학업중단과 ① 자존감,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우울, 비행 등의 개인적 요소[2] ②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환경 등의 가족과 관련한 요소[3] ③ 학습부진, 학교폭력, 학교체제에 대한 부적응 등 학교와 관련한 요소[4] ④ 교사 및 또래와의 갈등, 지지 체계 등의 관계적 요소의 관련

성을 모색했다. 이 분야의 질적 연구는 학업중단 학생들을 이해하고, 학업중단과 관련한 맥락을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은 양적 연구의 결과와 더불어 학업중단에 대한 이해를 풍요롭게 했다. 또한 연구를 통해 얻어진 근거를 바탕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안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중단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학교 밖에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다가, 어떤 경로로 학업중단을 결심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적합한 방법은 질적 연구이다. 질적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험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의 다양한 실재를 탐구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이다.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속한 세계, 맥락, 경험 등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의 경험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끌어내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이다. 그러나 질적 연구가 가진 특수성, 즉 상대적으로 적은 사례 수 때문에 그 결과가 일반화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질적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고, 개별 연구의 관점을 종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방법 중 하나가 질적 메타분석이다.

질적 메타분석은 특정 분야의 질적 연구 결과물을 대상으로 이차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는 방법이다. 질적 메타분석은 같은 분야에 대한 개별적인 질적 연구 결과물들을 연결 짓고 이를 종합하여 새로운 결과를 개념화하고, 기존의 개념을 통합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1][2]. 국내의 질적 메타분석은 교육학, 사회학, 의학, 간호학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연구는 양적으로 매우 적다. 그 이유는 질적 메타분석이 시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질적 연구의 양이 충분히 누적되었을 때 가능한데, 특정주제에 대한 국내의 질적 연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중단과 학업복귀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 질적 메타분석 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는 질적 연구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개인의 인식과 경험을 잘 드러내준다는 장점을 살리면서, 소수의 사례 수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의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들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게 된다. 이로써 학업중단과 학업복귀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경험하는지, 무엇이 그들의 변화를 이끄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하다. 첫째, 학업중단과 학업복귀를 연결 짓는 고리, 변화를 견인하는 관련 요소 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일련의 과정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어떤 변화에 의해, 어떤 변화단계를 통해 학업에 복귀하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로써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복귀 과정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통해 학업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을 수요자에 맞추어 고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탐구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학업중단의 계기, 학업중단 중의 경험, 학업복귀의 계기, 학업복귀의 경험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청소년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해 온 질적 연구물들을 메타 분석하여 종합적인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질적 메타분석 방법

질적 메타분석은 같은 분야를 연구한 여러 편의 질적 연구물을 이차적으로 질적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질적 메타분석은 양적 메타분석처럼 특정한 연구 분야의 결과물을 일관된 논리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Schreiber, Cooks와 Stern은 질적 메타분석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질적 메타분석은 핵심요소를 발견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물들의 집단 총합이다. 이는 최초의 결과를 새로운 개념화로 변형시켜서 최종적인 결과로 수렴된다(p.314)[1].” 또 다른 질적 메타분석 이론가인 Finfgeld는 질적 메타분석을 “개별적

인 탐구로 얻어진 결과보다 더 실질적이며, 기존의 발견에 새롭고 통합적인 해석(p.894)”이라고 정의했다[2]. 이러한 정의를 볼 때 질적 메타분석 방법은 질적 연구물에 대한 단순한 종합이 아니라, 연구 결과물에서 도출된 여러 개념 사이의 관계와 전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질적 메타분석의 목적은 같은 주제를 질적으로 탐구한 여러 연구들이 발견한 것에 대해서 핵심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질적 메타분석의 목적을 무엇에 두는지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생기게 된다. 질적 메타분석의 목적에 따른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얻어진 결과물을 어떻게 개념화하는지에 대한 차이에 두는 것, 초기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 초기의 연구 결과물 사이의 비교에 초점을 두는 것, 연구된 현상들에 대한 종합적인 묘사에 초점을 두는 것, 초기 연구 결과에 존재하는 원리를 더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것, 특정 연구 분야에 대한 맥락적 해석에 초점을 두는 것에 따라 연구의 관점이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자료의 분석 전략이 결정된다[3].

질적 메타분석의 절차는 학자들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절차는 ① 연구문제 설정 ② 연구물 선정 ③ 연구물 비교 분석 ④ 종합 및 해석 ⑤ 결과물 표현 등이다[2-6]. 본 연구는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절차를 바탕으로 [표 1]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

표 1. 본 연구의 질적 메타분석 단계

단계	내 용	내 용
1	연구주제 및 연구문제 설정	청소년의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에 관한 경험
2	키워드인 KERIS 검색	학술지 편
3	배제와 포함 준거에 따라 연구주제에 맞는 연구물 선정	학술지에 출판된 7편 선정
4	개별 연구물 분석	자료코딩-주제와 개념정리
5	개별 연구물 분석틀 도출	학업중단과 학업복귀 관련 요소 및 과정 관련 개념 도출
6	개별 연구물 사례 간 비교분석	종합적 해석 도출
7	종합 해석 및 보고서작성	최종개념 도출 및 결과서술

### 2. 분석 대상 연구 선정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분석 대상이 될 연구를 선정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전자통합검색에서 다음의 키워드를 통해 순차적으로 목적 표집 하였다. 먼저 키워드 ‘학업중단’으로 검색하자 학위논문 417편과 학술지논문 350편이 검색되었다. 이 중 결과 내 검색에서 ‘질적 연구로 검색된 논문이 47편이었다.’ 이들 논문 중 ‘학업복귀’, ‘복교’, ‘학업지속’을 다루고 있으며,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한 논문 11편이 1차 선정되었다. 1차 선정된 논문 중에서 분석 대상에서 배제할 기준은 학위논문이었다. 그 이유는 연구대상물의 연구물로서의 일정 기준을 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포함기준으로 작용한 것은 KCI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논문이다. 선정과정에서 학업중단숙려에 관한 논문은 학업중단숙려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제외시켰다[7].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의 삶의 도전에 대한 논문은 학업복귀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제외시켰다[8].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지속 요인에 관한 연구는 상담자가 학업 중단에 개입한 효과와 관련한 요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제시켰다[9]. 보통 질적 메타분석에서는 대상 논문을 선정할 때 질적 수준이 낮아서 배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논문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로 배제시키는 사례는 없었다. 이러한 배제와 포함의 기준에 따라 공동 분석자들과 협의 하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논문은 [표 2]에 제시된 7편이다.

### 3. 자료 분석팀 구성과 신뢰도 확보과정

질적 메타분석은 분석의 전체 과정에서 어떻게 신뢰도를 확보했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다[3][4]. 자료 분석 팀은 적어도 3명의 질적 연구 수행자와 외부의 독립적인 감수자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10여 편 발표한 연구자와 10여 년간 질적 연구를 수행해온 교육학 분야 교수 1인, 사회복지학 분야 교수 1인이 분석 팀으로 활동하였다. 각자 자료 분석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석자들은 5차례 대면 논의를 하였으며, 각 사례에 나타나는 개념 간 비교를 통한 범주 추출과 이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의 시간을 할애했다. 분석 과정의 신뢰도를 위해 외부의 독립적인 감수자로 질적 연구 전문가이자 대학교수 1인이 참여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 팀은 도출된 결과가 선정된 연구 결과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 4. 자료 분석

질적 메타분석에서 자료 분석 방법은 차이점의 비교, 추상화, 공통성, 묘사 등으로 다양하다. 질적 메타 분석은 자료를 분석하는 특정한 분석 도구에 대한 통일된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질적 메타 분석이 여러 질적 연구로부터 다양한 이해, 통찰, 해석을 생성해내도록 하는 시도이기 때문이다[6][10]. 일반적으로 질적 메타분석의 자료 분석과정은 해석적이며 변증법적인 관점을 포함한다. 해석적인 관점은 본래의 초기 연구결과를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며, 변증법적인 관점은 각각의 연구 결과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다[10]. 자료 분석 과정은 세부정보[4], 요약[6]과 종합[10], 이름붙이기[3]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묘사적-해석적 접근에 따른 자료 분석 단계를 따른다[11]. 이 단계는 총 7단계로서, ① 개별 연구에서 개념 분석 ② 개념 분석틀 설정 ③ 수집한 자료를 개념적 분석틀에 할당하기 ④ 의미 단위 묘사하기 ⑤ 의미 단위끼리의 비교를 통해 추출한 범주를 만들어내기 ⑥ 주요결과를 종합하기 ⑦ 표본에 대한 대표성 확인을 통해 신뢰도 확인하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②, ③, ④, ⑤, ⑥의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결론을 수렴했고, 마지막으로 ⑦의 과정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 III. 연구결과

### 1. 선정된 분석대상 연구의 기본 정보

선정된 분석 대상 연구 7편에 대한 기본 정보는 [표 2]에 최근 출판년도순으로 제시하였다. 대상 논문은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출판되었다.

표 2. 분석 대상 연구의 기본 정보

번호	저자 (연도)	기본정보
1	이선희 (2015)	제목 공교육 학업중단경험 청소년의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학업복귀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학교 담장 밖의 아이들, 또 다른 학교에 문을 두드리다-
		출처 청소년복지연구, 17(1), 333-356
		목적 학업중단 이후 삶의 경험, 대안교육특성화학교에 복귀한 경험 및 의미 탐색
		대상 학업중단 후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에 복귀한지 6개월 이상이 지난 청소년 5명(구체적인 나이와 성별 없음)
		방법 사례연구, 개별면담(참여자별 2회, 회당 1-1.5시간, 질문 3가지, 현장노트, 학교장과 교사 인터뷰, 문헌자료)
		결과 3개의 범주(학업과의 절연, 학업과의 해후, 학업과의 인연), 7개 하위범주
2	김상현 (2014)	제목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복교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연구
		출처 교육사회학연구, 24(4), 31-60
		목적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복교생의 학업중단 원인, 중단이후 생활 및 학교생활의 특징 탐구
		대상 고일포기나 고1,2학년에 학업 중단했다가 복교한 경기도 중소도시의 학생17명(나이연급 없음, 남9, 여8명)
		방법 사례연구, 반구조화 질문, 개별면담, 1인당 2회, 1회당 1-1.5시간
		결과 학업중단에 이르는 원인과 과정(불안정한 가정환경, 중2부터 시작된 학교 내 비행행동, 학교생활의 부적응), 학업중단 이후와 학교로 다시 돌아오기(학업중단 이후의 애매한 생활, 복교 이후의 힘든 학교 적응)
3	이선희 (2014)	제목 노동경험이 있는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복귀 경험-근거이론에 의한 접근
		출처 미래청소년학회지, 11(2), 157-181
		목적 학업중단 이후의 노동경험에서 학업복귀 과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험 분석
		대상 1년 이상 학업을 중단한 후 자발적으로 3개월 이상 학업 복귀하여 학업중단 의사가 없으며, 학업중단 후 노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 11명(18-23세, 남7, 여4명)
		방법 근거이론, 반구조화 질문, 개별면담, 60-100분, 3명 2차 전화인터뷰, 연구자직접면담
		결과 노동경험에서 학업복귀과정의 11개 범주, 학업복귀과정 패러다임 모형(원인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작용/상호작용, 결과)
4	김상현 양정호 (2013)	제목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배경과 복교 후 학교생활에 대한 연구
		출처 한국교육문제연구, 31(1), 81-113
		목적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경험 탐구
		대상 학업중단 후 복귀한 고등학생 17명(남9, 여8명), 3개교의 학생
		방법 현상학적 연구, 7개의 질문 위주 반구조화, 개별면담
		결과 성장배경 및 가정환경, 학업중단 이전의 학교생활, 학업중단,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복교 이후의 학교생활, 학업중단의 의미, 장래계획이라는 질문의 흐름에 따라 결과 진술
5	홍나미 신문희 박은혜 박지현 (2013)	제목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복귀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
		출처 청소년복지연구, 15(1), 121-153
		목적 학업중단 청소년의 다양한 학업복귀과정의 경험 탐색
		대상 학업중단기간 1년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 학업 복귀를 지속하고 있는 청소년 14명, 16-24세(남10, 여4명)
		방법 근거이론, 반구조화 질문, 개별면담, 90-120분
		결과 학업복귀과정 13개의 범주,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 분석
6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2011)	제목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에 관한 연구
		출처 청소년상담연구, 19(2), 125-154
		목적 학업중단 이후 성공적으로 학업에 복귀한 청소년들이 겪었던 경험 탐구
		대상 학업중단 이후 복귀한지 1년 이상 지난 청소년 12명(남7, 여5명), 18-22세
		방법 합의적 질적 연구, 구조화된 질문, 개별면담, 연구진 면담, 면접시간 제시되지 않음
		결과 학업중단배경, 결정적계기, 당시 느낌, 중단 후 생활, 학업복귀 결정요인, 학업복귀 후 어려움, 학업지속요인
7	조규필 외6명 (2011)	제목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 재적응 과정 연구
		출처 중등교육연구, 59(4), 969-1000
		목적 학업중단 후 복학한 청소년들의 학교 재적응 과정을 탐색
		대상 복학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전문계 고등학생 11명, 18-19세, 남7, 여4
		방법 근거이론, 반구조화 질문, 개별면접, 평균 1-1.5시간
		결과 19개 범주, 학업재적응유형 3개

대상 연구의 연구자는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의 대학 교수와 청소년상담관련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었다. 연구 방법은 사례연구(2), 근거이론연구(3), 현상학적연구(1), 합의적 질적연구(1)이다.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과정에 대해 다루는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했다. 자료 수집방법은 모두 대면 심층면담이다. 부수적으로 교사 등 관련자 면담(2)이나 현장노트 등을 자료수집에 활용하였다. 심층면담 진행하는 연구자나 연구진이 수행했다고 명시한 논문은 2편뿐이다. 평균 심층면담 시간은 1-2시간이며, 이를 제시하지 않은 논문이 2편이다.

## 2. 선정된 분석 대상 연구에 포함된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일반적 정보

선정된 분석 대상 연구에 포함된 연구 참여자(샘플)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표본의 수는 총 87명이다. 구체적인 연령을 제시하지 않은 논문은 3편이며, 성별을 제시하지 않은 논문은 1편이다. 제시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남자 참여자가 여자보다 많았다. 이들이 학업을 중단한 시기를 제시하지 않은 1편을 제외하면 중학교 10명, 고등학교 입학 포기 7명, 고등학교 1학년 48명, 고등학교 2학년 10명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많았다. 이는 교육부

자료와도 일치한다. 학업을 중단한 기간이 제시되지 않은 4편을 제외하면 이들이 학업을 중단한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다. 모든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에 참여한 시기는 고등학교 재학 이상의 상태였다.

학업중단을 했다가 현재의 연구에 참여한 시점까지의 학업복귀 기간을 언급한 논문은 3편인데, 3개월부터 48개월까지로 분포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업중단은 모두 학교 다니기를 그만두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들의 학업복귀는 중학교, 대안학교, 고등학교 등의 일반학교에 복귀한 경우(63명)와 검정고시나 수능준비 등 학교 외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24명)로 나타났다.

## 3.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상태에서 학업복귀로 변화 관련 요소에 대한 개별 연구물 분석

여러 경로와 이유로 학업중단에 처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학업복귀를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는지 살피기 위해 개별 연구물 내의 요소를 분석하고, 연구물 간 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학업중단 상태에 있던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 '성찰과 지지를 통한 자기 성장'이라는 개념이 전체 사례를 관통하는 주요 개념으로 도출되었다. 개별 연구물의 분석을 통한 청소년들의 학업 중

표 3. 분석 대상 연구에 포함된 연구 참여자(샘플)에 대한 일반적 정보

번호	참여 인원	연령	성별		학업중단					학업복귀			
			남	여	시기			기간	기간	종류/인원			
					초	중	고포기				고1	고2	
1	5	x	x	x		3	1	1		x	6개월이상	고등학교/5	
2	17	x	9	8			3	12	2	6개월-1년 추정	x	고등학교/17	
3	11	18-23세	7	4		1		7	3	x	3-18개월	검정고시준비/7 수능준비/4	
4	17	x	9	8			3	14		x	x	고등학교/17 대안학교/2	
5	14	16-24세 (18,57)	10	4	1	3		7	3	1년 이상	3-48개월	중/고등학교 각1 대학교/2 검정고시준비/6 수능준비/2	
6	12	18-22세 (19,08)	7	5		3		7	2	x	x	고등학교/6 수능준비/3 검정고시준비/1 대학교/2	
7	11	18-19세	7	4			x				6-36개월	x	고등학교/11
계	87					10	7	48	10				

단 상태에서 학업복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작용한 변화 관련 요소는 자기지각, 현실인식, 지원/지지이다. 각각의 개별적인 요소와 전체 변화 요소와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은 자기에 대한 지각이 활성화되면서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자각이 나타났다. 하나는 현재의 자기 위치에 대한 지각 변동이다. 이들은 자기의 현재 모습이 자기가 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는 자각, 자신이 학교로부터 벗어난 뒤 따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불편과 편함'을 동시에 느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학교에 안가는 자유'가 사회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 또 다른 자각 분야는 자신의 욕구와 관련된 자각이다. 학업중단의 상태에서 자신이 학교에 소속되고 싶어 한다는 것과 학교의 교복, 친구와의 관계, 안전한 울타리를 그리워한다는 욕구를 자각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확보하고 싶은 욕구를 만나게 된다. '자기자각'은 타인과의 관계, 현실적인 경험과 깊이 연관되어 보인다. '자기자각'은 학업중퇴자로

표 4. 학업중단상태에서 학업복귀로의 변화 관련 요소에 대한 개별 연구물 분석

연구자 (연도)	변화 관련요소	관련개념/주제	관련사례
이선희 (2015)	자기자각	-그리움이 담긴 학교 담장 속 -새로운 희망에 문 두드림	-학교 다니는 친구들 만나면 교복입고 시험이야기하고...나도 교복입고 싶고(p.347)
	현실인식	-졸업장, 인생의 필요조건	-중학교 졸업장이 없으니 아르바이트에서 안받아 줌(p. 346)
	지원/지지	-따뜻한 도움의 손길 -나를 지탱해주는 이들의 기대	-여기를 추천해준 사람이 엄마였어요(p.347) -아는 신부님이 추천해주었어요(p.347)
김상현 양정호 (2014)	자기자각	-입고 싶은 교복, 졸업장 필요	-다른 애들 교복 입은 거 보면서 학교 다니고 싶었어요(p.45)
	현실인식	-사회에서의 구별 짓기 -중퇴생으로 사는 삶의 고통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불편함과 막연한 불안감이 작용
	지원/지지	-보상을 제시한 부모	-아빠가 입학금 내주셨으니까 다니자 그런 거죠. 이번엔 컴퓨터도 사주셨어요(p.46)
이선희 (2014)	자기자각	-교복 입던 시절에 대한 동경 -손끝을 내밀어 만져보는 대학입학, 미래불안	-한 3년 놓았던 말예요. 아무것도 안하고 슬슬 미래가 걱정됐어요.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p.171)
	현실인식	-졸업장, 인생의 필요조건	-중졸인가랑 고졸인가랑 달라요...다른 사람들은 다 하고 있으니까. 성공하려면 학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p.170)
	지원/지지	-격려의 손길(친구, 전문가)	-00도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다 인간 취급받지 못한다. 공부좀 해라(p.170)
김상현 양정호 (2013)	자기자각	-편안함과 불편함의 공존	-학교를 떠나고 나서 일정부분 제도권 교육으로부터의 격리가 내심 걱정되고 불안해지기 시작(p.97)
	현실인식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생김(p.97)
	지원/지지		-엄마가 그냥 졸업만 해라 그래서(p.97)
홍나미 신문희 박은혜 박지현 (2013)	자기자각	-긍정적 과거 경험 돌아봄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후회와 위기의식 -부끄러운 사람이 되기 싫음	-선생님이 막 신경써주셔서...따뜻한 데에 있으라고 신경써주셨는데(p.135) -형들을 보니까 가망 없어 보여요.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죠(p.136) -제가 친구들한테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p.136)
	현실인식	-학업에 대한 필요 인식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며 살수도 없는 거구, 직장을 구한대도 중졸보다는 고졸을 더 많이 뽑을거 아니예요(p.137)
	지원/지지	-부모의지지 -상담자의 도움 -힘이 되어준 친구 -정보를 얻을	-내가 여기까지 있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엄마, 그 다음은 친구들이죠(p.138) -선생님이 상담해줄 때 제가 이득을 많이 봤어요...이 센터에서 많은 걸 얻었어요(p.138)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2011)	자기자각	-자신의 결심, 정보탐색 노력	-그런 열등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교열이 불타올랐어요(p.137)
	현실인식	-학력/졸업장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졸업도 안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대개..한심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요(p.136)
	지원/지지	-가족이나 주변인들의 권유 -상담자의 지지적 역할	-부모님이랑 친구들이 계속 검정고시 따라고, 그것만 하고 너 할 거 하라고 그래서. 주변에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p.137)
조규필 외 6명 (2011)	자기자각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인식발생	-남을 학교가고, 교복입고 다니는데...좀 한심하다 그래야 하나(p.983)
	현실인식		-자신을 양아치같이 보는 시선이 느껴졌고(p.983)
	지원/지지		-부모님이 저를 설득했어요.속을 썩이지 말자(p.984)

서 타인이나 사회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거나,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욱 명료해진다.

둘째,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로의 전환과 관련한 변화 요소 중 ‘현실인식’은 청소년들에게 ‘위축, 좌절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이대로 살아도 좋은가’에 대한 자기 자각을 촉진시키고, 성찰하게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상당수가 학업중단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연구1,2,3,4,6의 사례). 이들은 생산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체험을 통해 얻게 된다. 그들이 깨닫게 되는 사회적 기준은 ‘졸업은 해야 한다’, ‘학력이 낮으면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등이다. 이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업인의 충족 기준이 ‘졸업장’이라고 인식한다. 이들은 ‘졸업장’이 있어야 그나마 원하는 직업이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 결과로 이들은 ‘중퇴자에게 주어지는 사회 현실은 지금보다 훨씬 가혹할 것이다’, ‘평생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 수는 없다’, ‘한심하다’, ‘양아치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현실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은 주변 타인들의 조언이다. 이전에는 잔소리만으로 들리던, ‘그러다 인간 꼴 못 한다’, ‘졸업만 해라’ 등의 우려 섞인 충고가 학력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이 과정 중에 학업 중단 청소년이 경험하는 또 다른 현실 인식은 ‘학생’과 ‘학생이 아님’에 대한 것이다. 또래의 사람들이 ‘교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배회하거나 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보게 된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학생일 때와 아닐 때의 사회적 시각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구별 짓기가 사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엄연히 존재함을 알게 된다.

셋째, 청소년의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로의 변화와 관련한 요소 중 하나는 ‘지원과 지지’이다. ‘지원’은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질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지지’는 대상자에게 정서적인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다. ‘지원과 지지’는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복귀로 전환하는 데에 작용한 타인은 부모, 또래, 교사, 전문가, 상담자 등이다.

‘지원’에는 부모가 학업에 복귀를 돕는 물질적인 지원이나 보상, 부모나 주변 지인들이 학업에 복귀하도록

학교를 추천하거나 복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을 포함한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의미 있게 여긴 지지는 부모, 또래, 격려, 공감, 기대 등이었다. 특히 부모에 대한 미안함이나 보살핌에 대한 보답으로 학업복귀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자녀가 학업중단에 이르지 않도록 애쓰던 부모는 학업중단에 도달하게 되면 자녀에게 대체로 관대하게 대하거나, 방임하게 된다.

‘지원’에는 부모가 학업에 복귀를 돕는 물질적인 지원이나 보상, 부모나 주변 지인들이 학업에 복귀하도록 학교를 추천하거나 복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을 포함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자신과 현실에 대한 인식이 활성화되면서 부모에 대해 공감이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업복귀를 희망하거나 선택하게 된다.

넷째, ‘자기자각’, ‘현실인식’, ‘지원과 지지’의 세 가지 요소는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로의 변화에 서로 상호작용했다. ‘자기자각’과 ‘현실인식’은 자기 성찰을 심화시키고 가속화시킨다. 또한 이 두 요소는 서로 연동되어 상호작용하면서 자기 성찰을 이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동시에 사회 속에서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이러한 자기자각과 현실인식을 통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할까?’를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성찰적 자세가 주변의 ‘지원과 지지’를 만났을 때 힘을 발휘하고 자기를 위한 새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소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는 데에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필수적인 변화 요소이다.

#### 4.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의 변화단계 종합 분석

개별 연구 간의 분석을 통해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의 일련의 과정을 관통하는 개념은 ‘성찰과 지지를 통한 자기성장’이었다. 이 과정에는 순차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5개의 특징적인 단계가 나타났다. 5개의 단계는 포기(자기포기)-표류(자기불일치)-자각(자기만남)-결행(자기결정)-분투(자기투쟁)이다. 5단계의 변화 과정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다.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로의 5개의 변화단계의 특징 및 맥락과 함께 개별 연구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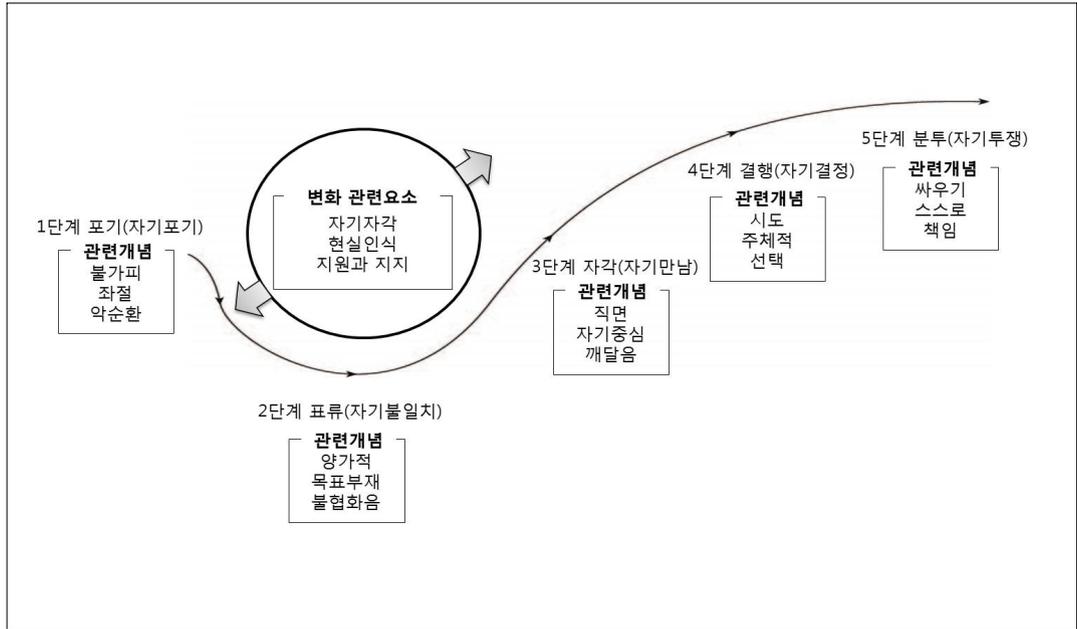


그림 1. 성찰과 지지를 통한 자기성장

개념과 주제를 종합하면 [그림 1]과 같다.

#### 4.1 포기

이 단계를 구성하는 주요개념은 불가피, 좌절, 악순환이다.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최적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많은 선택지 중에서 가장 합당한 선택이 아니라, 대안이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좌절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학업 중단에 작용한 요소는 크게 네 가지이다. ① 비행과 일탈 등의 부적응적 행동(연구2,3,4,6)과 불안이나 무기력(모든 연구)등의 개인적인 요소, ② 빈곤(연구1,2,3)과 불안정한 가정(모든 연구)의 환경적인 요소, ③ 부모(모든 연구), 친구나 교사(연구 2,4,6)와의 갈등의 관계적 요소가 연쇄적·순환적으로 상호작용하였다.

그런 상태에서 ④ 학교의 요소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학생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연구1,4,5)으로 부적응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 학교는 만회할 기회를 더 이상은 제공하지 못하고, 학생은 징계, 권고 전학 등을 학교로부터 통보받았다(모든 연구). 학생들은 악순환의 고리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물론 학교 생활이 무의미해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도 있다(연구3). 그러나 대부분은 학교 외의 대안이 없고, 학업을 그만두면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한 구체적이 정보가 없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생의 지위를 본의 아니게 박탈당하며, ‘정상적인 코스’에서 이탈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되었다.

#### 4.2 표류

이 단계를 구성하는 주요개념은 이중적, 목표부재, 불협화음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특별한 목표 없이 주어진 시간을 보낸다. 이들은 이 시기를 ‘애매한 생활(연구2), 편안함과 불편함의 공존(연구4, 6)으로 표현했다. 이들이 학업중단 중에 주로 느낀 것은 양가감정이다. 학교에 가지 않아서 좋기도 하지만, 스스로 한심하기도 하다. 이들의 일과는 아르바이트(연구 1,2,3,4,6), 잠이나 게임 등의 불규칙한 생활로 이어져서,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지 못했다(모든 연구). 아르바이트는 노동의 보람(연구3)을 느끼게도 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은 힘겹게 느꼈다. 비행이나 문제행동이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악화되는 경우도 발생했다(연구1,5,6).

또한 이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스스로를 철수하면서 위축되고 외로움(연구 1,3,5,6)을 겪는다. 이들은 학교 다니는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거나 타인들로부터의 시각을 통해 자퇴생이라는 낙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학업중단 중의 생활은 적극성, 만족감과는 거리가 멀고 허탈, 후회, 초라, 우울, 불안(모든 연구)등을 경험했다. 이는 이들의 학업중단에 대한 경험이 ‘불편한 자유(연구2)’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목적 없이 표류하는 삶에서 ‘보여주는 자기와 보여지고 싶은 자기’, ‘실제의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사이의 전형적인 ‘자기불일치’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불일치 속에서 자기 성찰이 시작된다.

### 4.3 자각

이 단계를 구성하는 주요개념은 깨달음, 자기중심, 직면이다. 학업중단 중에 있던 청소년들은 자신과 사회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다. 학업중단의 경험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불안과 불만족을 가져오면서, 이들은 자신이 바라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모든 연구).

타인의 시선, 학교 다니는 친구들과의 비교, 고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좋은가를 자문한다. 현실적인 직업 선택의 필요조건이 ‘졸업장’이거나 ‘더 높은 학력’이라는 새로운 깨달음, 자퇴생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제한적이라는 깨달음, 아르바이트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깨달음 등이 이들에게 일어난다(모든 연구). 또한 학업 중퇴자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다는 사회적 지위의 불안정성과 학업중단의 불안감이 작용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자각하기에 이른다. 본 연구에 선정된 연구의 사례에서는 직업선택을 위해 ‘고졸학력’이 필수이거나 최소한의 자격기준인 것으로 여긴다. 이 단계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은 교복과 친구가 있는 학교생활을 자신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모든 연구). 이 단계를 촉진시키는 요인은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연구3,4,7), 자신의 삶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연구5) 등이다.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연구5), 부모나 타인의 기대(연구2,4,6,7) 등도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단계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자기의 실체, 욕구, 꿈을 만난다.

### 4.4 결행

이 단계를 구성하는 주요개념은 자발적, 주체적, 선택, 시도, 실행이다. 학업 중단한 청소년들은 관계 속에서 지원과 지지를 얻어 학업을 계속 하는 것을 단행한다. 이들은 여러 고려 끝에 자신을 위한 자발적 ‘선택’과 ‘시도’를 하게 된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자신의 인생에 수동적 존재로 머물다가 비로소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춰 삶을 재조직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들은 주변의 권유나 추천(연구1,2,3,5,6)에 의해 또는 스스로 학업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정보를 검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연구5,7). 학업복귀의 방법은 ‘학교’를 다니는 것(연구1,2,4,5,7)과 학교 이외의 경로로 학력을 쌓고 인정받는 방법(연구 3,6)이 있다. 진학의 목표를 세우거나 현실적인 꿈을 키우면서, 새로운 결의로 ‘복귀’한다. 이 과정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지원, 정보제공, 정서적 지지 등을 제공하는 조력자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작용했다(모든 연구).

### 4.5 분투

이 단계를 구성하는 주요개념은 싸우기, 구하기, 스스로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에 복귀하고 나서 고군분투하게 된다. 이들이 싸우는 첫 번째 대상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의 두려움, 과거 경험으로부터 오는 좌절감과 실패불안, 학업중단 중에 강화된 습관과 타성(모든 연구)이 이들의 싸움 대상이다. 이와 대비를 이루어 이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 대신 희망과 꿈, 좌절 대신 성취, 타성 대신 적응이다. 두 번째 싸움 대상은 학업(모든 연구)이다. 수업결손으로, 학업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이유로 이들이 학업을 유지하는 것은 이들에게 또 다른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다시 이전의 경험세계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싸움을 더욱 절박하게 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아르바이트(연구2), 충돌하는 학교규칙(연구1,2,4,7), 후배나 교

사들과의 갈등(연구1,2,4,5,6), 주변 환경의 방해(연구5) 등은 이들의 싸움을 위태롭게 한다. 이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내적 요소는 자신의 달라질 이력서에 대한 희망(연구 3), 졸업에 대한 기대(연구1,3,4), 여러 일을 겪으면서 견고해진 내면(연구3), 성취경험(연구 1,5,6)이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외부적 요소는 부모, 또래, 교사, 전문가의 도움과 지지이다(모든 연구).

#### IV.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변화단계와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에 이르는 과정은 '성찰과 지지를 통한 자기 성장'과정이다. 이 과정 중에 변화의 단계가 도출되었다. 변화의 5개 단계는 포기(자기포기)-표류(자기불일치)-자각(자기만남)-결행(자기결정)-분투(자기투쟁)으로서, 5단계의 변화 과정의 중심은 '자기'이다. 본 연구에 선정된 개별 연구물의 참가자들은 학교와 학업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음에도 자기를 성장시키는 힘을 발휘하였다. 학업복귀 단계에 대해 명명한 연구에서 혼란-직면-현실적 준비-학업복귀의 4단계로 나타났다[12]. 이 연구의 '혼란' 단계가 본 연구의 '포기'와 '표류' 단계로서 본 연구에서 더 세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 변화 단계의 고유한 특징은 다음 단계로 연동되었는데, 단계의 흐름에 따라 다음 단계로 이끈 중요한 외적 요소는 타인의 지원과 지지였다.

따라서 각 단계를 활성화시킬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개발할 때 '자기성찰의 촉진'과 '타인의 지원과 지지의 강화'가 중요한 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학업중단 상태에서 학업복귀로 전환되는 데에 작용한 관련 요인인 자기자각, 현실인식, 자원과 지지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핵심 요소로 뚜렷한 삶에 대한 목표, 인격체의 헌신적인 사랑, 기관과의 조우를 꼽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13]. 따

라서 학업 중단을 숙려하거나 학업 중단 중인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에는 부모나 교사의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지지 및 공감 능력 향상 방법, 청소년의 자기 가치 발견 및 자각 촉진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학업재활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다양한 심리적 고통, 문제 행동이 악화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개입방법이 개발되고 제공되어야겠다. 이것을 '학업재활서비스'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학업중단에 이른 청소년에게 학업재활서비스로 다양한 개입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음 두 가지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들에게 제공될 학업재활서비스는 생활 친화적이어야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익숙하게 드나들 수 있거나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사회로부터 철수하여 외톨이로 있거나, 비행과 일탈행동을 하는 청소년들과 지내므로 학업재활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희박하다.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꿈드림 지원센터를 운영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센터가 찾아가는 다양한 방안을 고안해볼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는 주입식이 아닌 경험중심이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단체로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들이 구체적인 경험을 하고 성찰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 복귀를 원한다면, 지망자에게 맞는 학교를 선별하고, 실제로 학교에 가서 학교를 경험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다양한 직업정보와 진로탐색교육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체험하고 활동하는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이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이 선택하는 삶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17].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유형만큼이나 그들의 욕구나 필요 또한 개별적이고 다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서비스에서 청소년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종사자나 상담자 교육이 필수적이다.

셋째,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 선정된 연구의 참여자 사례에서는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감 표현이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사례에서는 소위 ‘자발적 중퇴’가 있기는 했으나, 대부분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중단에 대해 갈등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업중단을 결정한 청소년들의 학업복귀의 변화 단계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학교를 중단한 이후의 생활에 만족하는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이 우울하고 위축되어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14]. 그러나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은 부정적인 정서와 싸우거나 미래에 대해 막연하고 불안해한다[15]. 또는 자발적 중퇴자들 또한 진로, 취업, 학업복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13].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겪는 변화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복귀를 다룬 질적 연구논문을 질적 메타 분석하였다. 배제와 포함의 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수행된 학술지 논문 7편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연구물을 질적 메타 분석절차와 기술적-종합적 분석 방법[11]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의 과정의 주요 개념은 ‘자기성찰과 지지에 의한 자기 성장’이었다. 둘째, 학업중단 상태에서 학업복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변화와 관련된 요소는 자기지각, 현실 인식, 지원과 지지였다. 셋째, 학업중단부터 학업복귀의 과정에서 5단계의 변화단계가 나타났다. 5단계의 변화단계는 포기-표류-자각-결행-분투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의 과정에 대해 이 분야에서는 처

음으로 질적 메타분석으로 연구결과물을 종합하려는 시도를 했다. 둘째, 학업중단 계기, 학업중단, 학업복귀 계기, 학업복귀 실행, 학업복귀 경험의 일련의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거치게 되는 변화 단계를 5개로 세분화함으로써, 이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기초정보를 제시했다. 셋째, 학업중단 상태에서 학업복귀를 선택하는 전환과정의 세 가지 관련 요소를 밝힘으로써, 대상자들의 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에 이르는 메타 분석과정에서 각 개별 연구에서만 나타나는 미시적인 특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업복귀의 방법을 학교복교나 학교 외의 학업 복귀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다. 두 개로 나누었을 때 연구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는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변화단계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각 변화단계에서 작용하는 변화관련 요소에 대한 세분화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각 5단계에서 어떤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을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질적 메타분석으로 수행되었다. 질적 메타분석의 활성화를 위해 과정이 명료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질적 연구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질적 연구가 장려되고, 시도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1] 한국교육개발원, 2015 교육통계분석자료집, <http://kess.kedi.re.kr>
- [2]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엄아람, 최은희,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개발원, 2013.
- [3] 이자영, 강석영, 김한주, 이유영, 양은주, “학업중

- 단 위기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중단의 위험 및 보호요인 탐색,” 청소년상담연구, 제18권, 제2호, pp.225-241, 2010.
- [4] 심현, 이병환, 서동기,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을 위한 고등학생 학교 부적응 행동요인 분석,” 교육문화연구, 제21권, 제2호, pp.57-75, 2015.
- [2] R. Schreiber, D. Crooks, and P. N. Stern, “Qualitative meta-analysis,” In J. M. Morse (Ed.), “Completing a qualitative project: Details and dialogue,” Thousand Oaks, CA: Sage, pp.311-326, 1997.
- [2] D. L. Finfgeld, “Metasynthesis: The state of the art-so far,”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13, pp.893-904, 2003.
- [3] L. Timulak, “Meta-analysis of qualitative studies: A tool for reviewing qualitative research findings 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Vol.19, No.4, pp.591-600, 2009.
- [4] G. Nobilt and R. Hare, “Meta-Ethnography: Synthesizing qualitative studies,” Newbury Park, CA: Sage, 1988.
- [5] B. L. Paterson, S. E. Thorne, C. Canam, and C. Jilling, “Meta study of qualitative health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2001.
- [6] M. Sandelowski and J. Barroso, “Handbook for synthesizing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NY: Springer, 2007.
- [7] 정선영, 최성우, “일반계 남자고등학생의 학업중단숙려에 이르는 학교생활요인 탐구,” 학교사회복지, 제35권, pp.21-51, 2016.
- [8] 명소연, 조진욱,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질적 연구: 학교밖 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연구, 제24권, 제2호, pp.75-98, 2016.
- [9] 정민선, 김현미, 유순덕,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지속 요인에 관한 질적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제19권, 제1호, pp.87-105, 2011.
- [10] L. A. Jensen and M. N. Allen, “Metasynthesis of qualitative finding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6, pp.553-560, 1996.
- [11] R. Elliot and L. Timulak, “Descriptive and interpretive approaches to qualitative research,” In. J. Miles & P. Gilbert(Eds.), A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pp.147-159, 2005.
- [12] 홍나미, 신문희, 박은혜, 박지현,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복귀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 청소년복지연구, 제15권, 제1호, pp.121-153, 2013.
- [13] 김경애, “학교 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사례연구: 진로개발 단계 진입이 가능했던 이유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6권, 제9호, pp.1143-1170, 2016.
- [14]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보고서, 2014.
- [15] 최지연, 김현철,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및 지원 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3호, pp.103-132, 2016.
- [16] 이주영, 정제영, “학업중단 결정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2권, 제11호, pp.239-267, 2015.

#### 저 자 소 개

이 정 숙(Jeong-Sook Lee)

정희원



- 2007년 12월 : Georg - August University Goettingen(독일) 박사(상담심리)
- 2010년 3월 ~ 2015년 2월 :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가톨릭관동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교수

<관심분야> : 게슈탈트 심리치료, 상담자-내담자의 미시적 상호작용